

전자출판물 이용을 위한 '특수공간들'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등 이용 활발

국립중앙도서관 4층에 있는 '전자도서관'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93년 7월에 마련된 이 특수공간에는 CD롬을 비롯, CD-I,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레이저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필름(릴), 시각·그래픽 자료, 릴레이프, 지도 등 총 8만여종이 비치돼 있다.

국내 제작된 모든 CD롬 비치

CD롬만 150여종이 있는데 주로 서지정보 DB와 소주제별 DB, 백과사전을 비롯한 기타 아이디어 상품,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한 모든 교육용 프로그램 및 단행본 타이틀을 소장하고 있다.

담당자 민수해씨는 "이용방법은 간편하나 아직까지 외국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하고, CD롬 이용이 수월하려면 '윈도우' 습득이 필수"라고 말한다. 한편 이용자들은 2차 정보인 서지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형 DB제품 보다 1차정보인 소주제별 DB나 백과사전, 참고도서를 선호하고 있으며, 문자정보와 스틸 사진이 수록된 것보다 문자정보, 음성정보, 동화상정보가 입체적으로 수록된 타이틀을 즐겨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하루에도 수십명이나 돼 CD롬 드라이브가 있는 컴퓨터 15대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내년에 주크박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대를 비롯한 지방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모습.

대학과 포항제철에서도 전자도서관 도입 계획을 갖고 이곳에 견학차 온다"며 "가까운 시간내에 대학도서관과 100여개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일 10~17시, 토요일은 10~12시30분까지 개방한다.

국회도서관의 '멀티미디어실 자료실'(2층 206호)에서도 CD롬 이용이 활발하다. 이곳은 해외 데이터인 사회과학, 경제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살펴보면, 경제·경영분야 900여종의 저널에 실린 기사들의 초록 및 서지를 수록한 《ABI/Inform》, 1,400여종의 사회과학 분야 저널의 인용색인 및 초록이 실린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환경 관련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인 《Environment Library》, 북미·유럽을 포함, 전세계 1,000여개 이상의 대학에서 수여한 석박사 논문 정보를 제공하는 《DAO》, 비전술 핵과학·공학·안전·생명과학 등 자연과학과 기술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학위논문, 특허자료를 수록한 《INIS》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16개 분야로 나누어 있다.

기업체의 전자도서관 계획도 활발

이곳은 중앙도서관과 달리 컴퓨터에 장착된 기능키만을 사용해서 CD롬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다. CD-NET로 불리는 주크박스 2대와 메인 컴퓨터 1대, 단말기 9개가 네트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따로 CD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단말

기를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또 이곳은 서지정보 타이틀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검색재료의 'Down 로드'가 가능하다. 인쇄는 무료이나 기다리는 이용자들을 감안해 그 양을 제한하고 있으며, 디스켓을 가져갈 경우 검색결과를 무한대로 복사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의 멀티미디어실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평일은 9~18시, 토요일은 1시까지이다. 이용자격은 대학원생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 언론사·관계기관 종사자, 교사·교수 등이다.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현재 유아용과 국민학생용 영어교육 타이틀 2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LG전자도 10월 말에 전자도서관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LG전자 홍보부 채기영과장은 "LG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시사주제 타이틀, 해외 유명 타이틀, 경쟁사의 타이틀과 함께 CD-I 20여종, 비디오CD 180여종, 전문서적, 잡지 등을 비치한 특수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한다.

데이터베이스 생산기관과 출판사들의 빠른 CD롬 제작, 그리고 이용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생겨나고 있는 이들 전자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확산속도를 실감케 하는 증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외에 앞으로 생산될 전자출판물의 방향과 역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은희 기자

**“열화당과
함께 할
일꾼을
찾습니다.”**

悅話堂은 스무 해가 넘도록 미술과 사진, 민속 분야의 책을 만들어 온 미술도서 전문 출판사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상매체의 홍수 속에서 悅話堂은 참지식과 참정보가 담겨 있는,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자는 소신을 갖고 한편 한편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할 편집디자이너를 찾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분으로,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켜 온 이 소신이 힘들고 지치게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감각과 열의가 있고,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1995년 10월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갖고 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열화당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303호 전화 515-3141~3, 팩시밀리 515-3144